

송파구의회, 2026 을지연습 현장 방문

송파구의회는 18일 오후 4시, 송파구청에서 진행 중인 '2026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손병화 의장을 비롯해 조용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총 2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을지연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안보 영상을 시청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비상 대비 태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화 의장은 “안보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전과 같은 훈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 기간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송파구의회 또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형구 기자